

農家所得成長과 農業構造改善

金 英 植

首席研究員, 經濟學博士(미워전州立大)

- I. 序 論
- II. 農家所得成長과 農業構造改善
- III. 農業構造改善의 制約과 方向
- IV. 結 論

I. 序 論

國民經濟의 빠른 成長에 따라 農業部門에서는 農產物 價格의 上昇趨勢 또는 不安定의 問題와 經濟成長에 따라가지 못하는 農家所得成長의 制約性에 대한 問題가 동시에 擡頭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처한 여러가지 農業政策에 대한 討議가 활발해지고 있다.

모든 農業政策은 기본적으로 農民의 生活水準 向上을 위한 農家所得의 增大와 國民의 基本需要인 食糧을 적절한 價格水準에서 安定的으로 供給하는 두 가지 目的을 가지고 있다. 사실 이러한 두 가지 目的 중 어느 한 면만을 강조한 주장으로 農業政策을 토의할 때 가끔 토의가 결론이 없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價格은 주어진 需要條件下에서는 農業의 效率性 즉, 供給曲線의 위치에 달려 있고, 靜態的인 供給曲線을 전제로 할 때 所得增大는 반드시 價格上昇을 수반하게 된다. 물론 價格上昇은 所得을 增大시키는데 직접적 또는 增產誘因을 통

한 間接적인 두 가지의 효과가 있는데, 生産이 需要를 초과하는 경우 價格上昇이 반드시 農家所得의 向上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靜態的인 供給曲線 즉, 일정한 效率性을 전제할 때 所得增大와 낮은 價格水準의 目標을 동시에 이룩할 수는 없게 된다. 農產物의 價格은 農業의 效率性 즉, 生産費에 달려 있고, 높은 生産費下에서 낮은 價格의 요구는 農家所得의 問題를 가져온다.

이러한 이유로 農業政策은 그 目標인 所得의 增大와 적절한 價格水準의 유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供給曲線의 移動을 수반해야 한다.

供給曲線의 移動은 일반적으로 技術發展이라고 한다. 技術發展에는 물론 여러 가지 要素가 있지만 農業生産에서는 品種, 肥料, 농약, 농기계 등 새로운 生産要素의 開發과 노동·경지, 자본·노동, 자본·경지 등 各生産要素의 結合比率의 調整이 중요하다. 前者의 경우는 우리는 狹義의 技術發展이라 하고, 後者의 경우를 構造的인 改善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構造改善은 技術發展과 區分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사실 構造改善은 技術發展의 가장 중요한 형태이다.

本論文은 價格을 직접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農業構造改善을 통한 供給曲線의 이동

에 의한 농가소득 增大 방향을 토의하고자 한다.

討議는 農家所得成長의 趨勢와 要因分析, 그리고 所得增大를 위한 構造改善의 方向을 主要內容으로 하고, 이들 問題에 관련된 몇 가지 개념을 분명히 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II. 農家所得成長과 農業構造改善

農家의 所得增大는 經濟가 成長되어감에 따라 여러 가지 要素에 의해서 制約을 받게 된다. 따라서 經濟가 發展되어감에 따라 農村生活水準의 相對的 落後性의 問題는 정도의 差異는 있지만 어느 나라에서나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며, 이에 대처한 農村社會問題를 포함한 農民의 所得增大政策은 農業政策의 가장 重要한 문제가 되고 있다.

農業資源이 풍부하고 經濟成長에 따라 農業部門의 生産性이 빠르게 成長하는 나라의 경우는 農產物 需要側의 특성으로 農家所得成長의 制約을 받게 되고, 農業資源이 量的으로 不足하고 質적으로 不利한 나라의 경우는 農業部門의 實質生産性 向上의 相對的 隔差에 의한 供給側의 특성과 더불어 이러한 實質生産性 隔差補填을 위한 相對價格의 調整을 制限하고 있는 輸入政策을 포함한 價格政策의 이유로 所得成長이 制約을 받고 있다.

이러한 需要側 또는 供給側의 이유로 인한 農家所得增大의 制約성과 部門間 資源移動性의 制限性으로 農家所得의 相對的 隔差問題는 어느 나라에서나 가장 어려운 農業問題로 되고 있다. 이에 대처한 所得政策은 그 나라의 經濟發展水準, 雇傭構造, 農業資源與件, 經濟成長戰略 등 여러 가지 要素가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農業資源이 풍부하고 需要側의 요인이 초

득증대의 制約要素가 되고 있는 國家에서는, 예를 들면 “학교급식”과 같은 國內消費 擴大와 輸出擴大 등의 需要政策과 植付面積의 制限과 같은 供給制限에 의한 價格政策에 역점을 두고 있다. 農業資源與件이 취약하여 供給側의 要因이 중요한 制約要素가 되고 있는 國家에서는 農業資源의 開發 또는 社會的 投資의 強化에 의한 農業資源의 質的 改善 등을 통한 供給曲線의 移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물론 所得水準이 높고 國家財政이 풍부한 國家에서는 農家所得政策은 所得分配 및 社會福祉政策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農家所得 增大政策은 社會福祉의 성격의 경우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分類될 수 있다. 需要擴大와 供給制限을 통한 價格政策과 公共投資의 強化에 의한 農業資源의 量的, 質的 改善과 그 結合比率의 調整으로 供給曲線의 移動을 促進하는 供給側 政策이 그것이다.

供給側의 政策은 公共投資의 強化에 의한 농업자원의 質的 改善과 生産要素의 結合比率의 調整을 포함하고 있는데, 前者는 等生産曲線을 原點을 향하여 移動시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技術發展이라 하고, 後者는 生産要素의 相對價格의 變化에 따른 要素結合比率 즉, 資源配分の 合理化를 의미하는 것으로 構造改善이라 불리워지고 있다. 물론 위에서 사용한 構造改善이란 용어는 협의의 개념인 것이다. 技術發展 즉 生産要素의 質的 改善 또는 새로운 生産要素의 開發 등도 기본적으로는 個人費用으로 고려하지 않는 公共投資에 의한 것으로 역시 要素結合比率의 變化 즉, 構造改善에 포함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農家所得의 增大要因은 農業所得만을 所得源으로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農業

資源이 不足한 나라의 경우 農業所得만으로는 農家所得을 增大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農家所得 增大政策은 보다 적극적으로 農業部門에 새로운 所得源을 形成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農村地域의 工業化를 통한 農外所得源의 擴大가 바로 이러한 政策이다. 農家所得에서 農外所得이 차지하는 比率은 계속 增加하고 있는 趨勢에 있는데 현재 日本은 약 75%, 臺灣은 49%의 水準으로 農外所得이 農業所得보다 더욱 중요한 要素가 되고 있다.

앞에서 討議한 바와 같이 農業構造는 各 生産要素의 結合比率을 의미한다. 그리고 各 生産要素의 結合比率은 技術條件 즉, 等生産曲線의 형태와 生産要素의 相對價格條件에 의하여 決定된다. 그리고 長期的으로는 技術發展의 方向 즉, 等生産曲線의 形態도 各 生産要素의 희소성에 따라 誘導된다는 가정을 前提하게 되면 農業構造는 그 나라의 農業資源與件에 따라 變化하게 되는 것이다.

各 生産要素의 희소성을 나타내는 相對價格은 經濟成長과 產業構造의 變化에 따른 需要의 變化와 供給與件에 따라 變化하게 된다. 즉, 非農業部門의 成長과 資本蓄積은 農業勞動의 移動을 要求하고, 이는 農業勞動의 供給與件을 점점 非彈力的으로 變하게 한다. 이와 반대로 非農業部門이 提供하는 生産要素인 肥料, 農藥, 農機械 등의 供給은 非農業部門의 擴張과 技術發展에 따라 더욱 彈力的으로 되어 간다.

需要의 變化에 따라 供給이 非彈力的인 生産要素의 價格은 供給이 彈力的인 生産要素보다 相對적으로 빠르게 上昇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經濟가 成長함에 따라 供給이 非彈力的인 耕地나 勞動力은 農機械, 肥料, 農藥 등 工業化에 따라 그 供給이 彈力的으로 되는 生産要素에

비해서 그 價格이 더욱 빠르게 上昇하게 된다.

經濟成長에 따른 이러한 生産要素의 相對價格의 變化를 보면 지난 10年 동안 農機械, 肥料, 農藥의 價格은 각각 약 3.4倍, 4.0倍, 2.3倍로 上昇하였으나, 勞賃과 地價는 약 9.0倍, 17.6倍로 각각 上昇하였다. 이러한 生産要素의 價格上昇을 生産物價格上昇과 비교해 보면 勞賃과 地價는 生産物價格의 約 1.4倍와 2.6倍로 各各 上昇하였으나, 農機械, 肥料, 農藥 등의 價格은 生産物價格上昇의 60%, 또는 그 以下の 水準이었다.

表 1 農業生産要素의 價格變化

區 分	1977價格上昇 指數 (기준 65-67=100)	生産物基準 相對價格變化
勞 賃	899.3	1.35
農 機 械	336.7	0.51
肥 料	403.1	0.61
農 藥	234.3	0.35
耕 地	1,758.5	2.64
農 產 物	666.4	1.00

그리고 相互代替인 生産要素間의 相對價格의 變化를 보면 지난 10年 동안 農機械價格 上昇率은 勞賃上昇率의 約 37%, 肥料와 農藥價格의 上昇率은 各各 地價上昇率의 23%, 13% 水準에 불과 하였다. 이러한 生産要素價格의 相對的 變化에 따라 農業生産은 相對적으로 희소해지는 즉, 相對價格이 上昇하는 生産要素 節約技術의 發展을 통해서 調整되어야 한다.

機械價格에 대한 노임의 相對的 上昇은 노동 절약기술 즉, 機械化技術을 誘引하고 肥料 또는 農藥價格에 대한 地價의 相對的 上昇은 土地節約技術 즉, 단위 面積當 收量을 增加시키는 生物學的, 化學的 技術의 보급을 유인하게 된다. 그리고 노임과 地價의 相對的 變化에 따라 노동 절약 기술과 토지 절약 기술의 相對的 重要性이 變化하게 된다.

특히 노임은 앞으로 經濟成長에 따라 계속 上

昇할 것이다. 이러한 노임상승에 대한 農業의 調整은 노동생산성의 向上을 의미하는데, 이는 營農의 省力化 또는 機械化를 통해서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러한 農業의 機械化는 基本的으로 土地·勞動比率의 增大 즉, 經營規模의 擴大를 要求한다. 그러나 土地資源이 不足하고 地價가 높은 農業條件下에서 이러한 調整은 여러 가지의 制約을 받고 있는데, 이 問題는 뒤에서 다시 討議코자 한다.

以下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農家所得成長趨勢를 60年代와 70年代로 나누어 그 要因을 比較·分析하고, 위에서 討議한 構造改善을 중심으로 한 農家所得 增大方向을 討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農家所得成長과 그 要因을 보다 구체적으로 定義하는 것이 必要하다. 農家所得(Y)은 우선 農業所得(Y_a)과 農外所得(Y_n)으로 區分된다. 그리고 農業所得은 다시 單位面積當 生産量(y), 生産物價格(P), 戶當經營面積(A)에 의해서 決定된다. 즉 $Y = Y_a + Y_n$ 로 되고, $Y_a = y \cdot A \cdot P$ 로 計算된다. 여기서 所得과 價格은 一般物價指數로 디플레이트된 實質所得 및 實質價格으로 表示된 것이다.

따라서 農家所得 成長率(\dot{Y})은 農業所得成長率(\dot{Y}_a)과 農外所得成長率(\dot{Y}_n)의 構成比 加重平均値로 計算되고, 戶當實質農業所得 成長率(\dot{Y}_a)은 戶當經營規模擴大率(\dot{A}), 技術發展率(\dot{y}), 農産物의 實質價格 上昇率(\dot{P})의 合으로 計算된다. 즉, $\dot{Y} = (1-S)\dot{Y}_a + S\dot{Y}_n$ 이 되고, $\dot{Y}_a = \dot{A} + \dot{y} + \dot{P}$ 이 된다. 여기서 S는 農家所得의 構成比를 의미한다.

이러한 關係를 이용하여 農家所得의 成長率과 그 要因을 計算해 보면 <表2>에서 보는 바와 같다. GNP 디플레이타에 의한 農家戶當 實質所得의 成長率은 60年代(62~70)에는 年 약 3%로서

表 2 農家所得成長과 그 要因 單位：%

區 分	60年代(62~70)		70年代(70~77)	
	成長率	寄與率	成長率	寄與率
農業所得	2.9	74.2	7.9	73.1
技術發展	1.8	46.0	3.8	35.2
農産物價格	0.2	5.2	3.4	31.4
經營面積	0.9	23.0	0.7	6.5
農外所得	3.6	25.8	8.7	26.9
農 家 所 得	3.1	100.0	8.1	100.0
全 國 家 口 當 所 得	6.7	—	6.3	—

全國平均 家口의 所得增加率 6.7%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70年代(70~77)에는 비교적 높은 8% 수준으로 都農間의 所得隔差가 相對的으로 改善되는 結果를 가져 왔다¹⁾.

農家所得의 成長趨勢를 農業所得과 農外所得으로 나누어 보면, 60年代에는 農業所得이 2.9%, 農外所得이 3.6%이었고, 70年代에는 農業所得이 7.9%, 農外所得이 8.7%로서 農外所得이 農業所得보다 약간 빠른 率로 成長해 오고 있다. 따라서 農外所得의 構成比가 增加해 오고 있는 趨勢에 있으며, 1978年 현재 農家所得 중 農外所得의 構成比는 약 28% 水準에 있다.

農業所得의 增加趨勢를 그 要因別로 나누어 보면, 60年代에는 年平均 戶當 농업소득의 成長을 2.9% 중 技術發展이 1.8%, 經營面積의 擴大가 0.9%, 農産物價格의 相對的 上昇이 0.2%를 각각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70年代에 와서는 農業所得의 成長率이 年 7.9%으로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 중에는 技術발전이 3.8%, 農産物 價格의 相對的 上昇率이 3.4%, 經營面積의 擴大가 0.7%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70年代의 높은 農業所得 增加率을 가져온 主要한 要因은 技術發展과 유리한 價格條件이었다. 특히 價格要因이 農家所得增加에 대한 기여도는 60年代에는 5%에 不過하였으나, 70年代에

는 30%를 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다. 만약 이러한 價格條件의 改善이 없었다면 70年代에도 農家所得 增加率은 전국평균 家口소득 증가율보다 낮은 5%의 수준을 유지하여 농가소득 수준은 상대적으로 더욱 惡化되었을 것이다.

戶當 經營規模의 擴大率은 兩期間 모두 1% 미만으로서 지금까지 農家所得增大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戶當 經營規模의 擴大率은 總耕地資源의 擴張率과 農家戶數 減少率의 합으로서 經濟成長過程에서 특히 變化가 기대되는 要素이다.

以上的 分析에서 보면 60年代에는 技術發展이, 그리고 70年代에는 技術發展과 더불어 價格上昇 要因이 農家所得增大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앞으로 이러한 技術發展과 農產物價格의 相對的 上昇을 期待할 수 없을 것이라고 前提하면, 農家所得增大을 위해서 生産性 提高와 農外所得 增大을 위한 農業의 構造改善에 政策의 重點을 두지 않을 수 없다.

Ⅲ. 農業構造改善의 制約과 方向

앞에서 討議한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나라 農家所得增大을 위해서는 農業의 構造的인 改善이 가장 重要하다. 우리나라 農業의 기본적인 특성인 零細한 農業構造는 所得增大의 면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農業問題의 根本的인 理由가 되고 있다.

零細한 農業構造는 生産面에서의 非能率性의 問題뿐만 아니라 產地 수집기능 및 규격화, 또는 포장화 등을 어렵게하여 유통면에서도 非能率性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生産 및 流通의 非能率性은 農產物의 生産費를 높이고, 높은 生産費는 높은 價格을 要求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만약 이러한 높은 수준의 價格을 社會的으로 허용할 수 없게 된다면 農家所得의 相對的 낙후를 불가피하게 한다. 또한 영세한 農業구조와 이로 인한 經營능력의 저위는 기술의 보급과 시장정보의 전달을 신속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이는 需要側의 變化를 신속히 공급측에 반영시키지 못하게 되어 需給의 불안정과 價格의 불안정을 초래하여 資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는 重要한 理由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零細農業構造 改善을 위한 經營規模擴大는 여러 가지 農業外部 또는 內部的 要因이 作用하고 있을 것이다. 農業內部的 要因으로서 農地制度, 社會的 및 農家經營的인 要因 등이 있을 것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農家經營規模 擴大의 制約은 經營的인 要因이 重要하게 作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農家の 經營的인 要因으로서 地價와 勞賃水準, 經營能力, 農業收支 등이 重要한 要素일 것이다. 높은 勞賃水準은 機械化를 통한 耕地·勞働比率의 增加를 促進할 것이나 높은 地價는 耕地流動性的의 低下와 採算性을 압박하여 規模擴大의 制約要素가 될 것이다. 農業收支問題도 構造改善의 重要한 要因이 될 것이나, 收支改善을 위해서는 現構造를 前提로 한 價格支持의 方法이 아니라 構造改善을 통한 收支改善이 이루어질 수 있는 與件形成이 重要할 것이다.

經濟規模가 擴大되어감에 따라 經營者의 能力은 企業利潤을 決定하는 가장 重要한 要因이 될 것이다. 따라서 最近의 農業勞働力的 質的 低下 傾向은 構造改善의 重要한 制約要素가 되고 있다고 하겠다.

地價의 上昇이 農業構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노임과 地價의 變化 趨勢를 比較하여 보면, 1971년까지는 地價가 相

對的으로 약간 下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그 후 계속 급격히 上昇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1965~1967年 사이에는 坪當地價에 대한 成人男子 日當勞賃의 比가 약 0.5로서 1日 勞賃으로 耕地 약 2坪을 살 수 있었으나, 1971년에는 그 比가 약 0.3으로 낮아지게 되어 1日 勞賃으로 耕地 약 3坪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 뒤 급격한 地價의 上昇으로 1977년에는 그 比가 약 1.0로 坪當地價와 日當勞賃이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².

이러한 1971年以後의 地價의 勞賃에 대한 相對的 上昇趨勢는 우리나라 農業의 制約要素가 아직도 勞動力보다는 耕地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趨勢는 1977年을 기점으로 變化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이러한 最近의 기미는 이미 높은 수준의 地價와 계속적인 勞賃上昇으로 인한 農業採算性的 惡化가 地價에 反映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地價의 上昇率과 農產物價格上昇率을 비교해 보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農產物價格이 1970년부터 빠른 속도로 上昇함에 따라 地價는 2年 뒤인 1972년부터 급격한 상승을 시작하였다. 이는 農業의 收支改善이 제한된 生産要素인 耕地의 價格에 바로 반영되는 기본적인 經濟原理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勞賃의 上昇率은 1970年代 초반기 즉 1972~1974年間的 3個年을 제외하면 계속해서 農產物價格上昇率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었다. 그리고 1974年以後 勞賃上昇은 加速化된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農產物價格上昇이 相對的으로 낮았던 1970年以前에도 역시 높은 上昇率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農業勞賃水準은 非農業部門의 勞動需要 등 外生的 要因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地價의 上昇率은 1971年以前에는 農產

物價格上昇率보다 낮은 水準이었으나 그以後에는 農產物價格上昇率을 훨씬 上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水稻新品種普及에 의한 土地生産性 向上뿐만 아니라 農業外部의 要因들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특히 1972年以後의 급격한 地價上昇에는 높은 인플레이에 대한 손실방지와 투기적 土地需要增大가 중요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地價의 形成은 耕地의 擴張 또는 供給이 우리나라와 같이 非彈力的인 여건하에서는 需要側 要因에 의해서 결정되게 된다. 耕地의 需要價格은 이론적으로 耕地에 대한 장래 收益價値의 흐름을 現在價로 資本化시킨 價額을 의미한다. 耕地에 대한 장래의 收益은 技術發展에 의한 實質 生産性, 農產物價格, 耕地 이외의 生産要素價格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農業收益과 地價의 變化에 의한 資本損益에 의해서 결정된다.

近年의 水稻新品種을 위시한 技術發展, 價格支持, 地價의 上昇趨勢에 의한 資本利益 등은 地價上昇要因이 되고, 勞賃과 기타 生産要素價格의 上昇은 地價下落要因이 된다. 최근 地價의 相對的 하락 기미는 勞賃의 急上昇에 의한 地價下落要因이 他上昇要因보다도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데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農業技術과 價格條件을 靜態的으로 가정하면 耕地의 이론적인 需要價格은 年間 耕地에서 얻어진 收益價額을 割引率 또는 利子率로 나누는 것으로 計算된다. 農水産部の 農家經濟調查資料를 이용하여 1977年度 全國平均 耕地의 이론적 需要價格을 計算해 보면 坪當 약 1,245원으로 동년 現實地價 2,439원의 약 51%에 해당된다³. 즉 현실지가는 이론지가의 약 2배의 수준에 있다.

이러한 理論地價와 現實地價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地價의 上昇趨勢에 의한 資本收益이 地價

形成에 반영된 것에 기인된 것이다. 인플레이 또는 投機 등의 要因에 의한 耕地의 資本損益의 발생은 地價形成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⁴. 즉, 地價의 實質上昇率 g 가 實質利率 r 보다 높게 되면 장래의 資本收益을 現在價로 資本化시킨 價額은 無限大로 되어 地價는 크게 上昇할 가능성을 가진다. 물론 이러한 結果는 地價의 下落으로 資本損失이 예측될 때 現實地價는 理論地價보다도 크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음을 示唆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플레이가 특히 심했던 1972년 이후 地價는 빠르게 上昇하여 理論地價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었다.

이러한 地價의 급격한 上昇은 勞賃上昇에 의한 農業機械化의 요구와 이를 위한 經營規模擴大 요구에도 불구하고 戶當耕地面積이나 耕地·勞動 比率를 增加시키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經營規模擴大의 제약은 前述한 바와 같이 高地價 외에도 農地制度, 農業金融制度 및 社會的 要因 등 여러 가지 要素가 作用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農業機械化의 요구와 더불어 耕地所有上限制의 완화와 農地銀行制度 등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지금까지의 零細經營構造의 지속은 3町步 耕地所有上限制이라는 제도적 제약보다 勞賃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높은 地價와 耕地基盤의 취약성으로 인한 機械化의 制約 등 經營의 諸要因이 중요하게 작용한데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零細經營構造와 機械化의 制約은 앞으로 우리 農業이 해결하여야 할 가장 基本的인 問題이다.

經營規模擴大의 制約要因은 耕地所有上限制보다는 農業經營의 採算性에 의해서 더욱 制약을 받는다는 主張은 他報告書에서도 지적되고 있

다⁵. 그러나 이 주장의 內容은 勞賃이 勞動生産性보다 빠르게 상승하여 고용노동에 의한 經營規模의 확장이 收支面에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앞으로 機械價格의 相對的 下落을 통한 勞動의 代替가 經營規模擴大에 基本的인 要因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機械價格이 아주 낮은 수준이라 할지라도 높은 地價水準은 역시 經營規模의 擴大를 제약하게 될 것이다. 大規模經營은 自給自足的인 經營과는 달리 近代的 資本利潤의 발생을 要求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經營規模 擴大의 제약요인은 勞動生産性보다 빠르게 上昇하는 勞賃의 壓力뿐만 아니라 보다 根本的으로 높은 수준의 地價와 耕地의 分散性, 未區劃化, 用水施設未備 등 취약한 耕地基盤條件과 經營方式의 未確立 등에 있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가지의 制約으로 零細經營構造는 長期的인 現象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年間 農家戶數의 감소로 戶當平均 耕地面積은 약 0.9 ha에서 1.0ha로 약간 넓어졌으나, 그 速度는 대단히 완만하다. 1978年 現在 1ha미만 農家は 總農家戶數의 약 68%, 總耕地面積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다.

耕地面積은 개간, 간척 등의 新規開發의 低調와 非農業用需要의 增大로 1967年 以來 미미한 추세이기는 하나 減少傾向을 보이고 있다. 1970年 以後 耕地의 開發面積은 35千ha에 不過하나, 轉用面積은 124千ha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經濟發展과 人口增加에 따른 工場, 住居, 道路 등 非農業用 土地需要의 增大를 고려하면 앞으로 劃期的인 耕地擴張을 위한 投資가 없는 한 耕地面積은 늘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耕地面積이 現水準을 유지하고, 農家戶數가 最近의 추세인 年間 약 2%의 減少를 지속

할 것으로 가정하면, 農家戶當 平均耕地面積은 '90年代 초반에도 약 1.3ha 로 增加하여, 經營規模의 零細性은 여전히 尙存할 것으로 보인다.

農業의 效率性和 所得增大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大規模化로 農業의 構造的인 改善이 要求되나, 우리나라와 같이 耕地資源이 不足하고 農家戶數와 人口가 많은 상태에서는 그 成果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理由로 農業構造改善의 方向은 一部農家를 중심으로 經營規模擴大에 의해 生産性增大로 基幹的 專業農家를 育成하는 한편, 零細農家は 새로운 農外所得源을 통하여 고용기회의 창출과 所得增大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農外所得增加에 따른 農業의 副業化와 이에 따라 農業生産性이 低下되는 問題는 兼業農家の 協同的 營農을 助長함으로써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난 10年 동안의 趨勢를 보면 0.5ha~1.5ha 사이의 中間階層의 農家比重이 增加하고, 1.5ha 이상의 農家와 0.5ha 미만의 農家は 그 比重이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理由는 취약한 耕地基盤과 낮은 機械化水準, 農外所得機會의 減少, 農地制度의 硬直性 등 여러 가지 理由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달리 農外所得의 比重이 增加되고 있는 臺灣이나 日本의 경우는 0.5ha 미만의 農外所得 위주의 兼業農家와 2ha~3ha 이상의 專業農家の 比重이 增加해 가고 있는 趨勢에 있다.

이러한 結果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經營構造가 全般的으로 零細해지고 있으나, 日本이나 臺灣의 경우는 平均으로는 零細하지만 農業을 專業으로 하는 農家は 經營規模를 擴大하고, 農外所得을 위주로 하고 있는 農家は 農業을 副業으로 하고 있어 所得源으로서의 農業所得은 相對的 比

重이 축소되어 가고 있다.

日本이나 臺灣의 경우 0.5ha 미만의 農家戶數는 全體農家戶數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 農家が 所有하고 있는 耕地는 10% 수준에 지나지 않고, 이들 農家の 所得 중 農業所得이 차지하는 比重은 臺灣이 30%, 日本은 6% 수준에 不過하다.

專業農을 대상으로 한 經營規模擴大와 機械化 추진 등에 의한 效率的 營農을 위한 政策方向은 農家間의 所得分配面을 고려하여 반대하는 主張이 있다. 사실 모든 經濟政策은 效率性뿐만 아니라 고용과 所得分配의 面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農家間의 所得分配의 改善을 위해서 耕地所有의 均等化가 반드시 要求되는 것은 아니다. 所有分配의 改善을 위해서 耕地所有의 均等化를 主張하는 것은 農家所得增大를 위해서 農業所得만을 고려한데 기인된 것이다.

農家所得 가운데 農外所得의 比重이 점점 增加해 가고 있다. 農業資源의 制約으로 農業所得만으로는 農家所得增大에 限界가 있다. 새로운 所得源의 形成을 위한 投資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農業 以外 所得源의 比重이 높아지면 所得分配의 改善을 위해서 耕地所有 均等化의 重要性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農外所得의 比重이 높은 日本이나 臺灣의 경우를 보면 더욱 확실하다. 0.5ha 미만 農家の 所得이 2.0ha 이상인 農家所得에 비해서 日本은 83%이고, 臺灣은 63%로서 우리나라의 30% 수준과 比較하면 그 差異가 적다. 그리고 만약 耕地所有의 均等化로 農家間의 所得分配가 改善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投資에 의한 農外所得의 增大가 없으면 農家와 非農家間, 즉 部門間의 所得 隔差의 問題는 역시 해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IV. 結 論

農家所得增大은 經濟가 成長되어 함에 따라 여러 가지 要素에 의해서 制約을 받고 있어, 정도의 差異는 있지만, 經濟發展에 따라 農村生活 水準의 相對的 落後性的 問題는 어느 나라에서나 일어나고 있는 問題이다.

이러한 農家所得增大에 대한 政策은 經濟發展 段階, 農業資源與件 등 여러 가지 要因에 따라 相異하지만 一般的으로 價格政策과 構造改善政策으로 分類되어 진다. 本論文에서는 價格을 直接的인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構造改善을 통한 供給曲線의 이동에 의한 農家所得 增大方向을 討議하였다.

農業構造는 各生産要素의 結合比率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그리고 各生産要素의 結合比率은 技術條件 즉 等生産曲線의 形態와 生産要素의 相對價格條件에 의하여 決定된다. 各生産要素의 相對價格은 經濟成長과 產業構造의 變化에 따른 需要의 變化와 供給與件에 따라 變化하게 된다. 農業은 이러한 生産要素의 相對的 희소성의 變化에 따라 그 結合比率을 調整하여야 한다. 즉 機械價格에 대한 勞賃의 相對的 上昇은 機械化를 통한 勞動節約技術로 勞動生産性을 向上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基本的으로 經營規模의 擴大를 要求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耕地資源이 不足하고 農家戶數와 人口가 많은 상태에서는 農業의 一般的인 構造改善이 어렵고, 農業資源의 不足으로 農業所得만으로는 農家所得增大에 限界가 있다.

이러한 理由로 農業構造改善의 方向은 一部 農家를 중심으로 經營規模擴大에 의한 生産性增大로 基幹的 專業農家를 育成하는 한편, 零細農家

는 새로운 農外所得源을 통하여 고용기회의 창출과 所得增大을 피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農外所得增加에 따른 農業의 副業化로 農業生産性이 低下되는 問題는 結業농의 協同的 營農을 助長하여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農家所得 가운데 農外所得의 比重이 增加되어 함에 따라 所得分配의 改善을 위해서도 반드시 耕地所有의 均等化를 要求하는 것은 아니다. 耕地所有의 均等化는 零細構造를 一般化시켜 部門間의 所得隔差와 效率性的 問題를 모두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

農家間 또는 部門間의 所得分配의 改善을 위해서는 새로운 投資에 의한 農外所得源의 開發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農業으로서 發展하기 어려운 農家は 轉業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職業訓練을 實施하고, 여기에 따르는 여러가지 社會政策을 펴는 등 多角的인 所得增大施策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註1. 成長率은 $g = \sqrt[n]{Y_1/Y_n} - 1$ 로 계산되었고, Y_1 의 계산은 基準年度를 중심으로 한 3 年 平均值를 이용하였다.

2. 利用된 資料는, 勞賃은 農協의 農村賃料金 調查資料이고, 地價는 農水産部의 農家經濟調查에 의한 耕地評價額을 利用하여 計算된 것이다.

3. 平均耕地의 坪當農業收益은 約 249원이고, 할인율은 20%로 計算하였다.

4. 地價(P)는 耕地에 대한 장래의 農業收益(R)과 地價의 變化에 의한 資本損益(K)을 實質利子率(r)에 의해 現在 價로 資本化시킨 價額의 合計로 計算된다. 즉, $P = P_R + P_K$ 로 되고 P_R 과 P_K 는 다음과 같이 計算된다.

$$P_R = \frac{R}{1+r} + \frac{R}{(1+r)^2} + \dots + \frac{R}{(1+r)^n} \dots = \frac{R}{r}$$

$$P_K = \frac{Pg}{1+r} + \frac{P(1+g)g}{(1+r)^2} + \dots + \frac{P(1+g)^n g}{(1+r)^{n+1}} + \dots$$

여기서 P_R 는 農業收益의 資本化價額이고, P_K 는 地價 上昇에 의한 資本收益을 現在價로 資本化한 價額이며, g 는 實質地價上昇率을 의미한다. 그리고 g 가 實質利子率 r 보다 낮으면 $P_K = \frac{Pg}{r+g}$ 로 되어 耕地의 이론적 需要價格

$P = \frac{R}{r} + \frac{Pg}{r+g}$ 로 된다. 그러나 g 가 r 보다 높게 되면 P_K 는 무한대로 된다. 물론 g 와 r 은 期待值이고 g 가 무기한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비현실적인 것이며 단지 이론적 설명을 위해 전제한 가정이다.

5. Park, Jin H., "Facts and Problems of Farm Mechanization; The Case of Korea", *Farm Mechanization in East Asia*, Edited by Herman Southwerth, ADC, 1972.